

# F1005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유리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이메일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유리자산운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6613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5.08.03
운용기간	2020.04.01 ~ 2020.06.30	존속기간	최행으로 발표된 존속기간에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 채권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팀챌린지자산 배분E형 (유리자산운용)	자산 총액 (A)	5,955	7,999	34.31
	부채 총액 (B)	3	4	27.31
	순자산총액 (C=A-B)	5,952	7,995	34.31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6,768	7,894	16.64
	기준가격 (E=C/D×1000)	879.50	1,012.78	15.15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펀드는 해당 운용기간 동안 15.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초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락세를 보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및 바이러스 확산 속도 둔화에 따른 경제활동재개 기대감이 경기경상화 낙관론을 확대시키며 선진국 및 신흥국 증시 모두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4월 글로벌 증시는 경제 활동 중단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정책과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경제정상화 기대감이 힘입어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지수는 3월 저점 대비 25% 이상 상승하여 연초 이후 하락분을 상당폭 되돌렸으나, 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잔존해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되었습니다.

5월 글로벌 증시는 국제 유가안정, 경제활동재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백신개발 낙관론이 우세하며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중 대립 양상이 다시 부각되며 투자심리를 제약하였고,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점도 경기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유지되면서 상승탄력은 둔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진으로 신흥국 증시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선진국이 글로벌증시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6월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급증에도 경제활동재개 효과가 양호한 경제지표로 나타나면서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OPEC+ 감산 연장 및 서프라이즈 고용지표가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하였고 주요국의 연이은 경기부양책이 투자심리를 밀어 올렸습니다. 다만, 코로나2차 유행 우려가 급부상함에 따라 연준의 경기 불확실성 언급이 시장을 압박하며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으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요 경제지표와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투자가 기대가 하락을 지지하며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브라질 등의 약진으로 신흥국 증시가 강세 시현하며 글로벌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 기간 거래소종목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회복 낙관론이 크게 부각되며 여타 성장주 대비 빠른 주가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심화 금용시장 변동성 상황에서 개별기업 실적악화가 현실화 되면서 가이던스를 유보한 대부분의 업종대표주와는 달리 거래소종목들은 거래량 급증에 힘입어 견고한 이익장상을 발표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IPO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서 헤지수요가 급증하면서 홍콩거래소, 유로넥스트 거

래스 등 파생상품매출 비중이 큰 거래소들이 수혜를 받으며 양호한 운용성과를 견인하였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은 말레이시아 거래소와 마켓엑세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거래소는 감염증 확산에 따른 리테일수요가 급증하며 주가도 4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전자 채권거래량 급증으로 채권거래은 라인 플랫폼인 마켓엑세스의 상승탄력이 돋보였습니다. 한편, 거래량 감소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로 CME(시카고상업거래소)와 CBOE(시카고옵션거래소)가 상승반전에 실패하였고, 싱가포르거래소는 MSCI 지수상품 계약안으로 약력 기간 중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각국의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풀려난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며 거래소주가가 상승지력을 제공하면서 펀드수익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펀드는 극심한 변동성국면에서 선부른 매매를 자제하고,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및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저가 매수를 통해 편입비를 소폭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소들은 양호한 기업실적 및 이익전망치 향상 조정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신상품출시, 기업인수 합병 등 적극적인 수익모델 다변화 행보를 지속하며 실적개선 기대감을 높이며 상승랠리를 펼쳤습니다. 펀드는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유럽 및 아시아거래소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한편 신흥국 중 브라질거래소비중은 축소하였고, 단기조정시 추가 매수를 통해 주식시장 상승 참여 기회를 탐색하며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글로벌증시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실물지표 및 이익개선 기대감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심리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추가 부양책, 치료제 개발 낙관론은 긍정적이나 깊고 넓어야 할 대외변수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상승탄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일부 중의 바이러스 확산이 수개월을 갇혀 있는 가운데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여전히 진행중인 미·중 갈등 및 경기불확실성 우려가 투자심리를 압박하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가능성이 많이 약화된 트럼프 캠페인이 '중국대리기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경우 미·중 긴장도가 재차 심화될 수 있고, 단기 급변 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차이실현 요구를 자극할 가능성은 투자심리 제약 요인으로 판단되어 제한된 상승을 전망합니다.

2분기 실적시즌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영향력이 확인되는 시기인 만큼 실적발표 결과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활동 정상화 이후 기업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승조정 되면서 경기개신 기대는 긍정적이나 회복강도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유럽 및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정책이 증시 상승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유럽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스텝스가 투자심리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회복 기대감이 차월에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는 상반기 바이러스 여파에서 가장 큰 수혜 섹터로 투자매력이 부각되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국면에서 크게 증가한 거래량 모멘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정상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며 상승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풍부한 유동성 환경을 지지하고 있어 변동성확대 공백을 일정 부분 보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회복 신호는 거래소의 자금조달 기능을 크게 회복시키며 IPO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홍콩거래소는 분포 대형기술기업들의 2차 상장이 급증하며 거래량 및 수수료 증가 수혜가 기대됩니다. M&A도 진행형입니다. 거래소들의 디지털 전환 및 비즈니스 다각화 니즈는 소규모 기술기업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키며 장기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런던거래소의 레피티티브 인수 건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로 일부 폐쇄했던 고객들의 재모집 소식이 거래소에 훈풍으로 작용하며 영업정상화 기대감을 높인 것도 거래소에는 호재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초래한 뉴노멀시대(안택 시대)에서 급부상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독경제는 글로벌거래소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전략적 비즈니스모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강화된 리스크 관리, 온라인 거래의 성공적인 정착, 마켓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로 서비스 활성화 등은 거래소의 장기 투자매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합니다. 펀드는 현재의 편입비를 소폭 상승조정하면서 개별종목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수익 기회를 탐색하고 장기 안정적인 운용성과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유리자산운용)	15.15	0.05	4.41	3.92

\* 비교지수(벤치마크)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유리자산운용)	3.92	5.04	6.00	-

\* 비교지수(벤치마크)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1	0	0	-887	-69	0	0	0	2	50	-904
당기	0	0	0	970	0	0	0	0	0	-11	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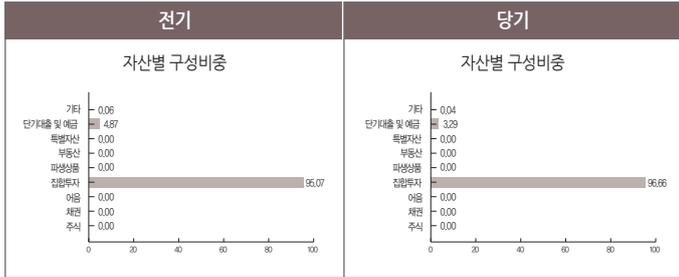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00)	0 (0.00)	0 (0.00)	0 (0.00)	7,732 (96.6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63 (3.29)	4 (0.04)	7,999 (100.00)
합계	0	0	0	7,732	0	0	0	0	0	263	4	7,999

※ ( ) : 구성비중



####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li> <li>-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li> <li>-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li> <li>-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li> </ul>

(단위: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06.30)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04.01 ~ 20.06.30)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04.01 ~ 20.06.30)
-	54.7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유리글로벌거래소지1(주식)C1	96.66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3.29	7	
3				8	
4				9	
5				10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유리글로벌거래소지1(주식)C1	주식형	유리자산운용	5,250	7,732	대한민국	KRW	96.6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5-08-03	263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1	78	2,459,419	-	-	2119000125
김태현	과장	37	78	2,459,419	-	-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459,419	-	-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2018.05.29 ~ 2019.12.06	차인식

### 5. 비용 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	0.02	0	0.00	
판매회사	9	0.15	11	0.1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1	0.18	11	0.16	
기타비용**	1	0.01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7	0.11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7	0.11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9309	0.2178	1.1487
당기	0.8521	0.1694	1.0215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